

2013 반성폭력 문화제

영화상영 & '아오이' 감독과의 대화

11월 6일 수요일, 늦은 여섯시 논 지 당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상영작

그녀는 친족성폭력피해자였다. 하지만 가족, 친척들은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그녀는 쫓기듯 집에서 나와야 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동생들을 위해 가해자를 고소하게 된다. 하지만 가족, 친척은 그녀에게 등을 돌렸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녀의 문제점을 들추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잘 싸울 수 있을까?

나는 아무도 믿고 싶지 않은 그녀의 이야기를 <잔인한 나의 호>이라는 잔혹한 동화로 그리고자한다.

_ 아오이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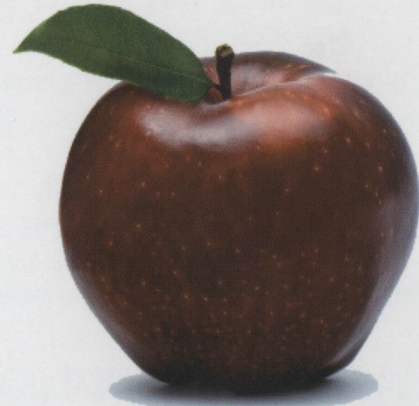
2013 반성폭력 문화제

국제캠 11/5(화) 11시~16시 기숙사B동 앞

신촌캠 11/6(수) 11시~16시 학생회관 앞

우리가 사랑하는,

아과



주최 연세대학교 제25대 총여학생회 The 好

주관 <2013 반성폭력 운동> 기획단, 문과대 여성주의 소모임 앨리스, 제25대 총여학생회 The 好

01 성폭력? 성폭력!

성폭력이란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역시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습니다.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학내 성평등상담실을 통한 성폭력 관련

접수 사건은 16건

상담 횟수는 831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연세대학교 역시 생각보다 많은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있고, 많은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건이 전부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성폭력 관련 기사가 포털사이트 뉴스 순위에 높은 랭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의 성폭력 사건 신고율이 10% 미만인 점을 감안한다면, 알려진 사건 말고도 우리사회에 얼마나 많은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지 예측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피해자’입니다.

성폭력 사건의 70% 이상이 아는 사람에게 의하여 발생합니다.

여기서 아는 사람이란 데이트 상대나 애인, 선후배, 직장 동료나 상사, 이웃 사람들, 가족이나 친인척 등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폭력은 특별한 문제를 가진 사람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일상화된 우리 사회의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언제든 누구에 의해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02 성폭력에 대한 오해와 편견

친고죄가 폐지되고 가해자 처벌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지만, 우리들의 성 의식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꿔봅시다.

Q. 성적인 신체접촉이 아닌데, 그걸 성폭력이라고 하는건 너무하지 않아?

성폭력이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성기 삽입이 일어난 경우가 아니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며 폭력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Q. 이상한 사람을 조심하면 괜찮은거 아니냐?

대다수 성폭력 가해자들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성폭력은 어떤 특별한 문제를 가진 누군가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화된 우리사회의 폭력적이고 여성 비하적인 문화 및 관행들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언제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Q. 아한 옷을 안 입으면 되잖아. 그렇게 옷 입는 거 자체가 문제 아니냐?

노출이 성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잘못된 통념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장소에 가느냐 하는 것은 각 개인의 자유와 개성입니다. 그것을 이유로 폭력을 당하고 경멸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이와 같은 피해자 유발론은 사건의 책임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돌리는 논리일 뿐입니다.

Q. 솔직히.. 밤 늦게까지 단 둘이 술을 마신다는 건 사실상 동의한 것 아닌가?

밤 늦게 술을 마시는 행위를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남성중심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유롭게 여가시간을 즐기고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누구에게는 비난의 빌미가 된다는 것은 부당한 성별 차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Q. 그래도 끝까지 저항한다면 성폭력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너무나 갑작스러운 공포의 상황에서는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위협적인 상황에서 피해자인 여성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을 느껴 저항하기보다는 무력해지기 쉽습니다.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볼 때, 신체적 능력, 혹은 사회적·경제적 위치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보다 약자인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Q. 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아니라는데?

어떤 행위가 성폭력인지 판단할때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즉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는지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가해자의 의도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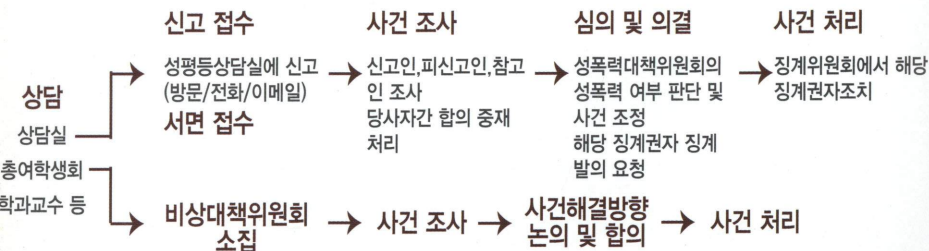
Q. 만약, 발생하지도 않은 성폭력 사건을 날조, 조작해서 신고하는거면 어떡해?

우리 사회 내에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실제 범죄의 90%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이는 성폭력 사건의 신고율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웃을 아하게 입지는 않았는지, 평소 품행은 단정했는지, 성폭력 당시 얼마나 저항했는가를 중요하게 다루는 우리 사회의 시선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게 만들어왔습니다.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과 신고 이후 벌어질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도 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문화적 현실과 맥락을 감안할 때 피해여성이나 성폭력 사건을 날조, 조작하여 ‘무기화’한다는 류의 각종 음모론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03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건정황파악	피해일시, 장소, 내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현재 직면한 위험 등을 정리해봅니다.
피해자인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	피해로부터의 차단, 가해자처벌, 손해배상, 주변인들과의 관계 해결 등 원하는 바를 생각해봅니다.
다양한 사건해결 방법의 장점과 어려움 검토	내가 원하는 각각의 것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나의 여건에 맞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봅니다.
사건해결 방법 선택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피해자의 요구안 정리 검토	가해자에게 요구할 것, 소속 집단 또는 주변인에게 요구할 것 등을 나눠 되도록 자세하게 정리해봅니다.
가해자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대응 방법 예상	다양한 사건해결방법 중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고, 우선순위를 정해봅니다.
선택한 사건해결 방법 진행	선택한 사건해결방법의 절차 및 주의할 점, 준비해야할 점을 알아본 뒤 대응을 시작합니다.

04 학내 성폭력 사건 처리절차



05 학내 반성폭력 학칙

I. 반성폭력 학칙의 제정

1993년 서울대 교수-조교간 성희롱 사건으로 학내 성폭력 사건이 공론화되고, 대학 내에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세대학교 역시 2000년 10월에 총여학생회의 제안과 학생총회를 거쳐 반성폭력 학칙이 제정, 공포되었으며 그 이후 다섯 번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학칙은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성폭력대책위원회, 성폭력 상담실과 예방교육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I. 반성폭력 학칙의 의의

반성폭력 학칙은 성폭력적 문화가 난무하는 대학문화에 대한 긴급한 반성과 위기의식에 학생들의 적극적이고 자치적인 운동으로 학교의 무관심에도 학칙을 제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제정된 반성폭력 학칙은 기존에 은폐되었던 성폭력 사건들을 수면위로 끌어 올리는 역할을 하였으며, 동시에 학칙이라는 물리적인 장치로 인해 절차상의 정당성을 얻으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건이 처리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반성폭력 학칙의 중요성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학내 구성원들이 학칙에 대한 전반의 이해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06 2013년, 개정된 성폭력특별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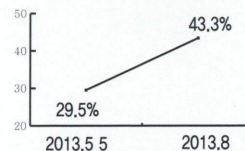
친고죄의 폐지 이전

*친고죄란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합니다.



친고죄의 폐지 이후

친고죄 조항 폐지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성폭력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합의를 하더라도 소가 취하되는 일은 없습니다. 또한,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지난 5월까지 29.5%에 불과했던 성범죄자 기소율은 지난 8월까지 43.3%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3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운동의 전개

〈2013 연세대학교 반성폭력 운동〉은 연세대학교 제25대 총여학생회가 연세대학교 학생 사회에 던진 의제로서, 성폭력은 단순히 개인과 개인 간에 우연히 발생된 것이 아닌, 가부장적 사회 구조 및 불평등한 성별 위계라는 왜곡된 사회구조 속에서 발생됨을 이야기합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들은 여전히 가해자 처벌에만 관심이 집중되고, 성폭력이 발생하는 구조와 문화에 대한 접근은 매우 미비합니다.

따라서 제25대 총여학생회는 여러 단위와의 연대를 통하여 성폭력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반성폭력 학칙의 공론화와 성폭력 사건 공개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문화적으로 접근하기 위하여 반성폭력 문화제 〈우리가 전하는, 사과〉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I. 공청회

지난 8일, 학내에 반성폭력 학칙의 존재를 알리고, 단위의 대표들에게 반성폭력 학칙의 내용을 공유하며, 학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심의 및 징계결과의 공개방안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II. 성 인식/실태 설문조사

학내의 성폭력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보다 근본적인 성폭력 근절 운동을 위한 대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29일부터 각 단과대와의 연대를 통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문지는 크게 성폭력에 대한 인지 수준, 학내 성폭력 사건 피해 여부, 학내 처벌, 성편향적 구조에 대한 인지 수준, 학내 성폭력 사건 해결 및 처리 과정에 관한 인지 수준 등을 조사하기 위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반성폭력 문화제



기획 의도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가해자/피해자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성폭력적인 구조와 문화를 공동체적 맥락에서 살펴봄으로써, 그릇된 문화에 침묵했던 과거를 반성하고 올바른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또한 학교를 피해자의 생존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하고, 가해자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만들기의 기틀을 다집니다.

프로그램



틀린 사과 찾기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안에 잠재되어 있던 성폭력에 대한 10가지 편견 깨기!
틀린 사과를 찾고, 편견과 함께 포춘쿠키 깨기!



이럴때 나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다양한 상황 속 대처 방안을 생각해보고, 성폭력 사건 대처 매뉴얼 익히보기!



우리들의 '진심 사과'

나도 모르게 익숙해져있던 우리들의 문화로 인해 상처받았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하기!
사과의 메시지를 사과나무에 붙이면, 맛있는 사과가!

영화상영



〈잔혹한 나의, 흠〉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현실과 감정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합니다.
피해자임에도 가정에서 쫓겨나야만 했던 외로운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성폭력 사건의 폐쇄성과 폭력성, 그를 둘러싼 우리들의 잘못된 성폭력 문화와 구조를 고발합니다.
감상 후에 본 영화의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 보다 더 참혹한 현실의 이야기를 듣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